

동네마트의 비애... 50대 주인 자살

개점 2년 동안 적자 장사에 빚 쌓여 인근 체인점 들어서며 경영 더 악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려온 50대 동네마트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트 주인은 개점 이후 2년여 동안 영업이 실패치 않은 데다 올 2월 들어 자신의 가게 보다 규모가 훨씬 큰 전 국민 프랜차이즈 마트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10시 10분께 나주시 경현동 한수재 저수지 인근에서 유서가 담긴 남성용 점퍼가 놓여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1시간 30분 동안 4m 깊이의 저수지를 수색한 끝에 조모(52·광주시 북구 오치동)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씨는 2년여 전부터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택가에서 소형 마트를 운영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울초 300m 거리에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중형마트가 생기면서 인근이 유지하던 경영마저 어려워져 수개월째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연일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버거웠고, 이로 인해 대학생 2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게 주위의 얘기가.

특히 조씨는 1층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할 2층 주택을 빌리면서 1억원이 넘는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영업에

따른 추가 투자와 적자로 인해 3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20일 오전 마트 문을 닫은 뒤, 나중에 사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조씨는 아버지에게 저수지 인근 어머니 산소에 가겠다고 말하고 나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능력없는 아버지를 용서해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on@



왕버들 소망 캡슐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에서 열린 '왕버들 천연기념물지정 기념 문화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소망 캡슐에 자신의 소망을 쓰고 있다. 1000명의 소망이 담긴 소망 캡슐은 2042년 개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러고도 대중교통?

80대, 문에 끼여 손목 부러져 화순교통, 2시간 넘게 방치

80대 노인이 버스에서 내리다 출입문에 팔이 끼여 뼈가 부러졌지만 버스회사가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2시간동안 방치해 놓은 것도 모자라 보험사기로 몰아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21일 버스에서 내리던 중 사고를 당한 조모(여·85)씨가 버스 회사측을 신고해움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일 새벽 6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남산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모(60)씨가 몰던 화순교통 소속 218번 버스에서 내리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오른손목이 부러졌다.

조씨는 "버스 출구 옆 계단 지지봉을 잡고 내리는데, 문이 닫히는 바람에 손목이 끼었다"고 말했다. 버스는 당시 승객을 태우던 중 잠시 정차한 상태로, 조씨는 운전기사에게 "팔이 부러진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사는 버스 내 다른 승객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통증을 호소

하는 조씨를 태운 뒤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 있는 차고지까지 30여분간 운행을 계속했다.

또 회사측은 차고지에서 조씨에게 버스 내·외부의 CCTV를 보여주며 "많이 다치지 않아 보인다. 혹시 보험사기 아니냐고 되레 화를 냈다는 게 조씨 가족들 주장이다.

해당 버스회사측은 이와관련, "CCTV에 조씨가 팔을 잡은 모습이 사각에 있어 부상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오해를 했다"며 "보험 적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남아 성추행법 첫 화학적 거세 확정

광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성추행법에 대한 법원의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됐다. 가해자와 검찰 모두 대법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이다.

21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11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다. /윤현식기자 chad@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 경찰 윗선서 축소·은폐 지시”

당시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청이 부당 개입”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초기 경찰 상부에서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지난 19일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수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정보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권 과장은 “수사경찰서가 김씨의 혐의와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

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왔다.

권 과장은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면서 “수사팀은 그제야 속았다는 느낌을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청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에게 허락을 받고 파일을 들춰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수사서에서 애초 의뢰한 키워드는 78개가 아닌 100개였다”면서 “100개의 단어 가운데는 ‘호구’, ‘위선적’, ‘내이비’ 등 대선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여서 핵심 키워드 4개만 선정했다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8800) 김종두



알몸여성 사진 유포자 둘 입건

목포경찰은 21일 알몸으로 목포 도심을 활보하던 20대 여성(광주일보 4월 8일자 6면)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상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이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일 목포시 상동 P소광복 앞에서 A(여·25)씨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촬영물을 페이스북 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폭로 권은희 과장, 전남대 사시 출신

여성 첫 경정 특채 화제 SNS 등서 응원도



‘국정원 직원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 수뇌부가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한 권은희(39·사진)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 과장을 응원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에서 잇따르고 있다.

권 과장은 지난 1997년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 43회에 합격, 2005년 여성 최초로 경찰에 경정으로 특채,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 시험 2차를 준비하던 2001년 광주에 사시는 아버님이 저를 찾아 신림동 고시촌을 헤매다가 경찰관과 함께 원뿔을 방문해 깜짝 놀랐다”면서 “당시 아버님을 도와준 경찰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 경찰 입문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었다.

권 과장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 사명감 위에 나섰다”고 썼다.

백찬홍(@mindgood)씨는 권 과장의 경찰 입문 계기를 들며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 경찰을 꿈꿨고 그렇게 살아갔려고 했던 사람이 직을 걸고 내부 고발했다면 경찰 스스로 그리고 국민이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유명인사들도 잇따라 관련 게시물에 “리트윗”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술 달걀 성장 교각에 '망'

○목포해양경찰은 술이 달걀 상태에서 배를 몰다 공사 중인 교각에 충돌한 혐의로 1700t급 모래 채취 운반선 A호 선장 김모(52·목포시)를 조사 중.

○선장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께 새천년대교(압해읍~압태도) 건설 현장인 신안군 압태도 인근 해상 교각을 들이받았다는 것.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전날 밤 선원 2명과 목포의 한 술집에서 소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는데,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기 수치인 0.086%로 확인.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가격권인가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요리 하는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출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임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임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